

# 여래종 “봉사종으로 통해요”



여래종 여래구도봉사단 회원들이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내 위치한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에게 점심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10월 30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 도립공원.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자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한두 명씩 눈에 띄기 시작하니 급세 구름처럼 몰려온다. 여래종 여래구도봉사단이 공원내 마련한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이다.

무료급식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10여 명. 봉사자들은 배식 2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국과 밑반찬을 준

비하느라 잡시도 쉴 틈이 없다.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에 이르는 많은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빨간 조끼를 걸친 여래구도봉사단 회원들이 능숙한 솜씨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식탁까지 부축해 주고 빈그릇을 치우는 등 갖은 일을 도맡아 했다.

창단이후 줄곧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신연진 단장(57)은 “노인들이 맛있게 드시고 활짝한 표정을 지을

때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면서 “나눔을 통해 봉사 의미를 맛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래종 여래구도봉사단은 1988년부터 평일(월~금요일) 점심에 무료급식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아 무료급식 횟수만도 4500여회에 이른다.

그래서 성남과 광주 지역 주민들

이들이 참석했으며, 스리랑카 국립 무용단의 댄스공연과 인기 가수 공연 등으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또한 성남시민을 위한 불교영화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8월 한달간 다섯 번에 걸쳐 개최해 성남 일반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래구도봉사단은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우 돕기 일환으로 장학금

## 여래구도봉사단 18년간 4500여회 무료급식 주 5회 지역어르신 300~500명에 점심 공양

에게 여래종은 ‘봉사종’으로 통한다. 18년의 짧지않은 역사답게 여래구도봉사단에는 3백여 회원들이 가입돼 있다. 연령층도 20~60대까지 다양하다. 종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봉사단원들은 종단의 공식적인 포교사라는 자긍심을 갖고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래구도봉사단은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지역 노인잔치도 열고 있다. 올해는 2천명에 달하는 노

후원과 휠체어 전달도 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양로원인 자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마용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단의 활동은 비단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5년전부터 완전히 파손된 미얀마 파간 대탑 복원 불사와 파간지역의 우물 개간 사업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최근들어 스리랑카 콜롬보에 유치원과 문화센터도 봉사단원들의 기금으로 건립 중이다.

김주익 기자



## “6개 지방 중무원 중심체제로 전환”

“창종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 전까지 재임종 및 사찰 재등록 신청을 받아 제 2의 창종이라는 각오로 종단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것입니다.”

10월 17일 원웅종 총무원장에 선출된 성관 스님(사진)은 재임 후 종단 조직을 재정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웅종의 창종 정신은 ‘원융’ 즉 화합입니다. 흩어진 종도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화합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조발심으로 돌

아가 현재 400여개가 등록돼 있는 종단 신하 사찰을 재정비 하고 6개의 지방 중무원 중심 체제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성관 스님이 종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종도교육과 중무행정 개선이다.

또 그동안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종도 연수교육을 1년에 5박6일 정도 반드시 마련할 예정이다. 득도 교육도 희망자가 많지 않아 매년 열 수는 없지만 2년에 한번씩은 종

무원 청사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성관 스님은 원웅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중무행정에 대폭 참여시키기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비구니회를 전국 규모로 활성화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내년 사찰 등록이 완료되는 상반기 중으로 전국 사찰들이 총무원과 인터넷을 통해 중무행정을 볼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김주익 기자

## 태고종 9일 봉원사에서 자정결의대회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1월 9일 오후 2시 신촌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자정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황룡사와 선암사 문제 등 종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종도들의 상호 불신과 갈등을 불식시키고 종단화합의 기회를 다지고자 마련되는 것.

태고종은 이 대회를 통해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고 대외적 종단 이미

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에는 승정 및 원로의원, 중앙종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는 혜초 종정 스님의 법어와 자정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된다. 법회 후에는 <태고보우국사의 중지중풍과 그 수행법> 출판기념 법회가 열린다.

## 미륵종 전국 승려단기연수

미륵종 교육원(원장 정은)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김해 관음정사에서 제8차 전국 승려단기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수행자로서의 자질향상 및 각종법회의 식등일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 군법당서 음성공양 환희심 넘치네



호국 원광사 합창단은 음성공양을 통해 군불교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한 제3회 호국음악제 모습.

### 호국 원광사 합창단

11월 1일 오후 2시 국방부 호국 원광사 강당. 30여 보살들이 찬불가 악보를 펼쳐놓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호국원광사 합창단원. 11월 29일 봉행되는 제38회 군공의 날 행사의 음성공양 연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자, 지금부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지휘자이자 음악 선생님인 전세아씨의 한마디에 회원들은 자신의 악보를 챙겨 연습 준비를 한다. 삼귀의, 사홍서원 등 매년 부르는 법회 의식곡이지만 연습하는 합창단원들은 한국 한국 최선을 다해 부른다.

1989년 창단한 국방부 호국원광사 합창단(단장 권영숙)은 호국원광사 법회는 물론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및 국군불교총신도회의 주요 행사 등 중요한 군불교 행사에 음성공양을 하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합창단원들이 심시일만 내는 회비는 32사단, 75사단 등 군법당 건립에도 후원이 돼 군불교 활성화

에 힘을 보태고 있다.

권영숙 단장은 “법회나 행사에서 찬불가 음성공양을 할 때가 제일 환희심이 나고 행복하다”며 “우리가 부르는 찬불가가 장병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군생활하는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호국 원광사 합창단은 부정기적으로 진행해온 호국 음악제도 군종교구와 함께 정례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기금도 조성해 장병들에게 초코파이 등 위문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회원 배가운동을 통해 더 많은 장병들에게 음성공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국 원광사 정인성 주지법사는 “합창단 음성공양은 법회를 생기있게 만들고 참석하는 사부대중들에게도 흥겨움을 준다”며 “법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세대 장병들에게도 찬불가를 통한 포교도 늘려가면 군포교도 훨씬 더 생기가 넘칠 것”이라고 말했다.

호국 원광사 합창단은 60세 이하의 신심있는 재가 보살을 대상으로 상시 단원을 모집한다.

(016)759-2524

김두식 기자

###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진행되나
  -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추어서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봉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당 건립 후원 : 낮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등참 및 문외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필요 허길량에 후원 석가모니불상(석조) 문의:02-2004-8291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2006년 한국불교박람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불교 최대규모의 전시회와 함께 하고 싶다면  
불교계의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을 원한다면

## 2007한국불교박람회에 참여하십시오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25 / 서울무역전시장  
문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TEL 02)2004-8213~9 www.bexpo.org